

일제수탈 고통과 한 춤과 노래로 '힐힐'

'마당놀이 수탈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서
매주 토요일 오후 펼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마당놀이 수탈전' 공연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마당놀이 수탈전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박물관 야외 개항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근대마당놀이 수탈전(연출 김형태 교수)은 박물관 대표 문화상품으로 2012년에 창단된 시민 연극지원봉사자 단체인 군박패(군산근대역사박물관놀이패)가 참여한다.

군박패는 창단 이후 박물관 내 근대관에서 공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수탈전은 시민참여 문화공연으로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도시였던 군산항을 배경으로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한(恨)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풍물놀이와 시인 배우들을 앞세워 근대거리 퍼레이드로 시작하는 마당놀이는 잠터 참여자들 모두 근대한복을 입고 동참해 전국 유일의 근대 개항장이라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마당놀이 수탈전' 공연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수탈전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박물관 벨트화지역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해 개항장터 야외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81만여 명

이 방문했으며 올해 매일 평균 6만여 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박물관 대표 문

화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과 퍼레이드 공연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연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박물관과 개항장터를 찾는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이희정 밴드 '눈을 뜨다' 발매기념 12일 전주 공연

이희정 밴드가 <눈을 뜨다> 정규 1집 앨범 발매기념 쇼케이스 무대를 갖는다.

공연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전라도의 특별한 감성이 느껴지는 태평한 소리로 채워 관람객들과 마음의 안식을 공유한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 이희정을 대표(기타 김휘상, 베이스 이영화, 피아노 최고은, 드럼 김인수)로 발매하는 이번 앨범에는 총 8곡이 실렸다.

타이를 곡인 '반짝이는 눈을 뜨다'는 판소리 다섯 바탕 심청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이 곡은 황후가 되어 나타난 심청이와 극적으로 만난 심봉사

하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자 각처에 있는 맹인들이 일시에 눈을 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서양의 소울 펑키 리듬을 접목시켜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장단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관객들은 국악의 라인에 몸을 맡겨 진정한 관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앨범의 프로듀싱은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김휘상이 담당했다.

그는 펑키, 발라드, 블루스, 락 등의 장르에 관소리와 민요를 믹싱 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공연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gukakinihiyoung.com> 혹은 전화 231-077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호랑이 오빠 얼쑤' 공연 모습.

전주박물관, '호랑이 오빠 얼쑤' 18일 무대

극단 신명나개의 공연 '호랑이 오빠 얼쑤'가 오는 18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 무대는 난타(모듬북)와 피아노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국악 뮤지컬로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닌 타령장단과 울동을 배우면서 공연을 즐기는 체험놀이극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전래동화를 각색, 자신이 사람인 줄 착각하는 호랑이의 엉뚱한 효도기를 다룬다. 공연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사람과 동물, 자연이 하나로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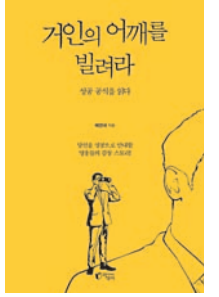
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 '키'를 이용해 만든 탈을 선보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연희극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의 시간도 마련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전래동화와 전통장단·소품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전통연희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무료관람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1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 (jeonju.museum.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220-1013. /정해은 기자

화제의 책

내 안의 금수저 찾기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만유인력을 주창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단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통사람이 거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는 있다. 거인들을 통해 꿈과 지혜를 전수하면 더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다.

삶에 등불을 밝혀줄 거인은 반드시 현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역사의 인물도 얼마든지 훌륭한 거인이 될 수 있다. 책을 통해 그들의 고귀한 생각과 품성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회사 경영에서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갓 입사한 여사원이 주차를 하다 빌 게이츠의 새 차에 흠집을 내었다. 당황한 그녀는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상사에게 물었다. 상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내세요.' 그녀는 상사의 조언대로 빌 게이츠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빌 게이츠의 답장이 왔다. 메일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 목록 1호는 '사람'이다. 아무런 비싼 차라고 해도 1호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가 메일을 보내 신입 사원의 어깨를 두드려준 것은 이런 인재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경영 정신은 훌륭한 인재가 머물고 싶어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세상은 물론 공평하지 않다. 역사 이래 불공평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책에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 광산을 채굴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청년 이야기가 나온다. 그 청년에게서 광산을 사들인 업자는 다시 채굴을 시작해 비락부자가 됐다. 청년이 작업을 멈춘 3피트 아래에 황금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은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성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미터'를 잡아내는 사람의 몫이다.

저자는 "휘황찬란한 황금 광산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은 그보다 더 값진 황금 광맥을 인간에게 선사했다. 그 보물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 바로 사람 마음속 3피트 안이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꿈, 행복, 열정, 희망, 신념, 재능과 같은 정신적 자산이 황금 광맥"이라고 말한다.

거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광산을 하루빨리 채굴하라고 주문한다.

"이순신 장군은 소通的 대가였다. 전투에 나서기에 앞서 부하들과 둘러앉아 병법과 전술을 토론했다. 전쟁과 굶주림에 지친 장졸들에게 막걸리 1천여 통을 풀어 위로하고 활쏘기와 씨름대회를 쉬기로 열었다. 추위에 때는 부하에게는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장군의 소통 전술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편지 말미에 작성 날짜를 기록한 뒤 반드시 '이순신 소(疏)'라고 적었다. 통상적으로 쓰는 배(拜)나 배상(拜上)을 쓰지 않고 '소'를 쓴 것이다. 평소 얼마나 소통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의 한 단면이다." 배연국 지음, 288쪽, 1만5000원, 지상사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0일)

<p>▷쥐띠 46년생: 사소한 일도 주의하라. 60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72년생: 금전으로 인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베풀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p>	<p>▷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 61년생: 손아랫사람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 운이다. 73년생: 처음에는 서로 소통하나 나중에는 어긋나니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85년생: 차가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p>	<p>▷호랑이띠 50년생: 처음에는 뜻이 맞지 않으나 나중엔 잘 풀린다. 62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조력자가 나타나는 운. 74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을 도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6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러울 만 하나 큰 욕심은 금물.</p>	<p>▷토끼띠 51년생: 아랫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에도 좋으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소통이 잘 되는 운. 75년생: 상대의 모진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니 귀를 기울여라. 87년생: 감정이 고조되는 운.</p>
<p>▷용띠 52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다. 64년생: 뒷사람에게 좀 더 신경을 쓰라. 76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운이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뱀띠 53년생: 현재를 잘 지키고 때를 기다려라. 65년생: 근본을 잘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77년생: 불필요한 일은 삼가고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금전이 잠시 들어오나 다시 나갈 운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고 지출을 삼가라.</p>	<p>▷말띠 54년생: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길운. 66년생: 잠시 쉬었다 진행률이 좋겠다. 78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기 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90년생: 구설수가 따르나 자신이 행동한 결과이니 미리 방지하라.</p>	<p>▷양띠 55년생: 평소 애 덕을 쌓았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방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다. 67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9년생: 남성은 여성을 도와줄 때면 일이 쉽게 풀리는 운이다. 91년생: 식욕이 좋은 운이니 과식하지 말라.</p>
<p>▷원숭이띠 56년생: 화근이 되는 것은 초기에 막아야 하는 법. 68년생: 타인과의 화합도 좋고 재물운도 좋으니 편안한 운 세다. 80년생: 물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무리가 되는 일은 삼가라. 92년생: 타인에게 행동을 공격하게 하라.</p>	<p>▷닭띠 57년생: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69년생: 금전운이 점차 좋아지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전진하라. 81년생: 과식을 조심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93년생: 동기진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때로는 직진 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좋을 때. 58년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7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82년생: 아직은 운이 침체되어 있으니 좀 더 준비하고 진행하라.</p>	<p>▷돼지띠 4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하는 때. 59년생: 지출한 만큼 서서히 채워질 것이다. 71년생: 사회적 계통이 좋지 않으니 과식은 삼가라. 83년생: 운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나아갈 시기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야 편안한 운이다.</p>